

시민들과 함께 만든 광주 푸른길 공원 10년만에 완공



최근 완공된 광주시 동구 푸른길 공원에 남광주역사 테마파크공원. 시민들이 테마파크 안에 설치된 조형물을 지나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녹지로 도심을 잇다

남광주역사 테마파크 준공
광주역~동성중 7.9km 완료
하루 이용객 1만여명 전망

광주 도심철도 폐선부지에 조성된 '푸른길 공원' 조성 공사가 10년 여만에 마무리되면서 도심전체를 녹지 축으로 연결하는 시민 참여형 랜드마크가 완성됐다.

광주 동구는 푸른길 공원에 마지막 미완성 구간인 남광주역사 테마파크(320m 구간) 조성공사를 지난 1일 마치고 개방했다. 이에 따라 푸른길 공원 7.9km 전 구간에 대한 사업이 10년4개월 만에 완료됐다.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가 될 북구 중흥동 광주역~남구 진월동 동성중 입구 전 구간은 11만8000㎡ 규모로 모두 27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지난 2002년 3월 초 첫 삽을 뜬 푸른길 공원은 도심철도 폐선부지 10.8km 중 2.9km(동성중 입구~효천역)를 제외한 7.9km를 잇는 선형공원으로, 조선대 정문~남광주사거리(1구간) ▲광주천~백운광장(2구간) ▲백운광장~동성중(3구간) ▲광주역~조선대 정문(4구간) ▲옛 남광주역사 주변(5구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현재 이들 구간엔 느티나무·이팝나무·상수리나무 등 46종 31만 2000그루가 심어져 있으며, 2만 4574㎡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도 설치돼 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자·의자·분수·쉼터 등 공원시설(45종)도 마련돼 있다.

특히 전 구간 중 중간에 위치한 남광주역사 테마파크는 푸른길 공원의 거점지역으로써 공원의 기능을 완성하고 도심전체를 녹지 축으로 연결하는 광주의 상징적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엔 열차놀이시설과 분수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푸른길 공원은 일찍부터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각광받아 왔다. 이곳 간의 만남과 소통·휴식·운동·문화관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지훈(26·조선대 4년)씨는 "폐 선로를 방치하지 않고 공원으로 꾸미니 보기에도 좋고 산책이나 데이트 장소로 즐겨 활용한다"며 "완공이 됐다 하니 친구들과 함께 전 구간을 걸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하루 이용객이 1만명에 이르는 푸른길 공원은 80년 넘게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광주의 녹지 축을 연결한 국내 최초의 시민 참여형 공원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의 공간이자 광주

■광주 푸른길 공원



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공원에 인접한 주택·상가의 자가 상층에 따른 세수증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푸른길 공원은 공원조성 과정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푸른길기구운동본부'를 결성하는 등 설계과정에서부터 시공 과정, 공원관리에 이르기까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 화제가 됐다.

또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환경분야 종합대상과 녹색건설성 평가 최우수상, 2007년 대통령상인 공공건설 사업분야 '좋은 건설 발주자상' 등을 수상하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진도 운림산방에 '국립 남종화 역사관' 건립

100억 투입 2016년 완공... 내년 정부재정계획 반영 추진

'예향' 진도군에 '국립 남종화(한국화) 역사관' 건립이 추진된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조선후기 남종화의 화맥을 계승한 명인들의 기념 사업 일환으로 국립 남종화 역사관을 건립을 추진중이다.

의신면 사천리 운림산방에 일대 1만4530㎡의 부지에 들어설 남종화 역사관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역사관에는 명인전시실과 서화체험실, 세미나실, 미술역사관과 관리·부속시설 등이 마련되며 운림산방의 전시실과 더불어 우리나라 한 국화의 흐름을 조망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진도군은 남종화의 산실인 운림산방 등 예술자원이 풍부하다. 운림산방은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 선생(1808~1893)이 말년에 거쳐하던

서 후학을 키우고 여생을 보낸 화실이다.

운림산방에는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소치 허련과 미산 허형, 남농 허건, 임인 허림, 임전 허문 등 허씨 가문의 5대 화맥을 볼 수 있다.

남종화는 인격이 고매하고 학문이 깊은 사대부가 수묵과 담채를 사용해 그린 간단하고 은화한 그림으로 알려

져 있다. 진도군은 내년 실시계획을 거쳐 건축공사에 들어가고, 2015년 건물 신축과 장비 등을 구입한다는 계획이 있다.

진도군은 역사관이 조성될 경우 삼별초 유적과 진도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원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내년 정부재정계획에 국비 5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접촉하고 있다"면서 "군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특구 지정에 관한 문화기반 시설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광(光)산업 대부' 김국웅 회장 별세

인간 존중·열린 경영 실천... 우리로광통신 설립 세계적 기업으로

광주지역 대표 경제인인 김국웅(광(光)산업 대부)이 별세했다. 김씨는 11일 오전 5시30분 별세했다. 향년 73세.

고인은 광주서중과 광주공고,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2년 무등수지(현 무등)에 입사해 1984년 무등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1998년에는 광주 광산업 1호 기업인 우리로광통신을 설립했다.

무등은 각종 전기·전자 제품의 절연 피복용 및 보호용 소재인 세계 최고의 열수축성 튜브를 생산해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로광통신은 국내 최초로 FTTH(광가입자망) 초소형 분배기 개발에 이어 로봇용 광센서, 바이오 광센서 등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광주지역 광산업협회로는 처음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지역 대표기업이다.

고인은 평소 '인간존중'과 '화합정신', '정(情)이 있는 회사, 열린경영'을 강조하며 성공한 기업일수록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경영이념을 지켜왔다.

사원 복지에도 투철해 2년에 1번, 전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둘째 및 셋째 아이 출산 직원에게 300~500만 원을 지원했다. 장애인



직원을 배려하기 위해 2층짜리 건물에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 등 고령노동자부터 '행복지수 1등 기업'으로 선정됐다.

무등 관계자는 "지난 주말까지도 회장님과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며 "특별한 병력이 없었는데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문화와 봉사에 관심이 많았던 고

인은 2004년 광주제세나협의회 회장 겸 '투게더광산' 초대 추진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위원회 위원, 광주상의 부회장, 전남대 총동창회장 등을 맡았다. 지난 2005년에는 전남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올 2월에는 조선대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중소기업주간 대통령 표창(1999), 장영실상(2002), 지역혁신 박람회 국무총리상 표창(2004), 수출 1000만불탑 수상(2008), 경영자 대상(2011) 수출 2000만불탑 수상(2012) 등 다수의 상훈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자녀인 김인(EFM대표), 준(미래에셋증권 부장), 명희(주부·선(대학교)씨) 등이 있다. 민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특실, 발인은 14일 오전 8시다. (062-231-8901).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2순환도로 사업권 市에 반환 촉구

광주시민협 "민간사업자 비정상 운영 용납 안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 사업자는 불합리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권을 광주시민협에 반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2순환도로 민간 사업자가 비정상적 형태의 사업 운영을 통해 시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지난 2003년 3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이고 2004년에는 타인 자본 중 앞순위 차입금 1420억 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추가 이자 부담, 수요 예측에 미달한 통행량 등으로 늘어난 적자 일부를 시가 보전하면서 2001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1190억원의 예산이 보전됐다.

광주시는 사업자에게 자기자본 비율을 협약 당시 상태(29.91%)로 높이고 도로 감동명령을 했고 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감동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시민협은 광주시민협에 민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빼앗긴 혈세 환수를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이고 2004년에는 타인 자본 중 앞순위 차입금 1420억 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로 높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과다노출 벌금 5만원?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 경범죄 시행령 처리

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알코올을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나,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기, 압박해 가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개제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알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흥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을 내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성김씨 국(國)씨에서 노환으로 2013년 3월 11일(陰) 1월 30(日) 별세하셨기에 부고합니다.

日午前 5時(陰) 1月 30(日) 별세하셨기에 부고합니다.

장발인일시... 2013년 3월 14(日) 08시

장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선산)

2013년 3월 12일

嗣子 김 군

女 김 명

孫희준인자

子婦 조서변이

孫 철순지승

孫 호석영아

01016440133932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부동산 실전문자과정

부동산경매, 부실채권(MPL), 땅처리아파트 등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 박사(부동산전문)

평생교육공공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수상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KBC-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자의 공무원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 회 이상 특강

▶ 초창강사 명지대 문정수교수, 동강대이영무교수, 김주한 전세시장장 등

▶ 선착순 마감(그룹 지도)

일시	매주(화) 19시~22시 (4개월)	매주(목) 19시~22시 (4개월)
수강료	20만원	18만원
연락처	교육대 062)520-4243	전남대 062)530-3873

특전: 1.자격취득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 경매 분석사, 부동산 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으로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립니다

부동산 강의 및 컨설팅 상담

010-5613-1808(정영수 박사)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금호아파트 54, 39, 87, 160, 419

계림사거리 버스정류소

4.19정류소 55,98,151,518

서방사거리 육교정류소 06,19,83,180,184

산정입구 계림초등학교

호남직업전문학교

홍플러스 광주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